

전남도의회-중국 저장성 대표단 10년만에 공식 교류

김태균 의장 “농수산물, 이차전지 산업 등 연계·협력 확대”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4일 의회 접견실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강화와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 저장성 대표단의 전남도의회 방문 이후 약 10년 만에 성사된 공식 교류다. 대표단은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두강(杜康) 부주임을 단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성(省) 단위의 입법과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지역의 주요 정책 입안과 외교, 국제교류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대표단은 지난 주말 전남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하며 빠른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양측은 단순한 방문과 의례를 넘어, 정책과 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경험 공유를 위한 정례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기 상호 방문 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교류의향서(LOI)’ 체결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무안국제공항과 저장성 항저우를 잇는 국제노선 재개 문제도 논의했다. 해당 노선은 정기편 운항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 사고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저장성 측은 당시 사고에 대해 위로를 전하며, 노선 재개 시 항공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수요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전라남도과 저장성은 농업·수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산업과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 지역”이라며 “저장성 내 글로벌 기업과 전남의 농수산물, 이차전지 산업 등을 연계해 양측이 공동의 실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 간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두강 부주임은 “양 지역은 산업뿐 아니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4일 의회 접견실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강화와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라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도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분야의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현재 저장성을 비롯해 장

시성, 푸젠성, 산시성, 장쑤성 등 중국 내 5개 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현장속으로

남광주시장서 취임식 생략 공식업무 시작…소상공인 소통

4일 취임한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관행적인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행보로 남광주시장을 찾아 민생과 경제정책 점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영문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강기정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남광주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실태 점검 등 소비 진작 방안을 모색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찾아 VX스튜디오, MX스튜디오 등 실감콘텐츠

제작 기반시설을 둘러보고, 입주기업 제작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청취했다.

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방문, 광주시 핵심산업인 미래차모빌리티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차국가산단 및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을 청졌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사회통합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하는 등 중앙행정과 정당 실무에 정통한 정책전문가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4일 오전 남광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풍부한 정부 감각과 균형잡힌 리더십, 이재명 정부 및 국회의 강력한 네트워크로 광주시 문화·

경제 도약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스마트저축은행, 호우 복구 성금 2000만원 기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스마트저축은행이 4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스마트저축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기탁식에는 조성운 스마트저축은행 대표이사

와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 마련, 생계 지원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스마트저축은행은 기부와 더불어 임직원들이 직접 수해복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여성을 위한 기부부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조성운 스마트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저축은행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은 “이번 기탁은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나눔”이라며 “스마트저축은행의 적극적인 나눔 행보에 감사드리다”고 화답했다.

한편 스마트저축은행은 1972년 10월 광주시에 설립, 50년 이상 운영 중인 증권저축은행으로 2021년에 자산규모 1조원을 돌파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가족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대학탐방 진행

광주과학기술원 방문…진로체험도

광산구가족센터는 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학탐방과 창의·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성장기회 격차해소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대학과 다양한 진로자원을 활용

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GIST 대학탐방은 청소년들이 실제 대학 환경을 체험하고 진학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캠퍼스 투어, 전공 안내, 재학생 멘토링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AI와 로봇 같은 미래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GIST를 직접 둘러보니 이공계 진학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창의·직업체험 활동은 음원 제작, 베이킹 프로



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팀워크와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로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AI 같은 미래 분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키워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PEOPLE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성남시·서울 중랑구·대구 달성군 담양 향한 자매도시 온정 행렬

최근 집중호우 침수 피해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자매결연 도시인 성남시는 컵밥·반찬·식용유·미역국 등 2500만원 상당의 밀키트를 기탁했으며, 우호교류 도시인 서울 중랑구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장갑·장화 등 장비와 복구 인력 지원용 컵라면·캔커피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또 다른 자매결연 도시인 대구 달성군은 이재민 성금 100만원을 보내며 힘을 보탰다.

기탁된 밀키트와 구호 물품은 수해 현장에서 복구작업에 나선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 침수 피해 이재민 등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담양군은 달성군·성남시·중랑구와 매년 상호 방문과 축제 참여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두터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집중호우 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도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운 기자 jnwnews@gwangnam.co.kr



월드쉐어

나주 이재민에 구호물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나주시민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월드쉐어가 기록적 폭우로 주택이 침수된 시민 80여명을 지원하고자 라면, 생수, 즉석밥 등 식료품을 지원했다.

월드쉐어는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긴급식량, 위생용품, 식수 지원 등 인도적 구호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나주지역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전야주 월드쉐어 광주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상구 나주부시장은 “후원해주신 물품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월드쉐어에 깊이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느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 국지매에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운세 (음력 6월 12일)

쥐 48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라
60년생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긴다
72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다
84년생 변동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96년생 지인의 갑언이설에 속지 말라

토끼 51년생 뜻하지 않던 문서 생길 것
63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다
75년생 많은 돈을 넣고 차량 탑승할 것
87년생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다
99년생 내 짝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한다

말 54년생 주변사람 믿고 뭉뚱치 말라
66년생 하늘도 귀하의 노력을 알고 있다
78년생 주위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90년생 항상 조심성 있게 행동하라

돼지 57년생 명예훼손을 당할 운
69년생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81년생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니 염려 말라
93년생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소 49년생 벼슬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라
61년생 귀하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것
73년생 분명한 대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
85년생 상사 충고나 도움말을 받아들이라
97년생 속 사정을 친구가 알아주지 않는다

송 52년생 반드시 내리막길에 이르는 법이다
64년생 심한 갈등을 겪을 것이니 말 조심
76년생 일로 바쁘지만 실속이 없을 것
88년생 노력한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양 55년생 이목을 끄는 관심사가 생긴다
67년생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된다
79년생 길은 옳지 않으니 빨리 바꾸라
91년생 금전으로 순간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개 58년생 명성과 부를 얻게 된다
70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무난할 것
82년생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위험하다
94년생 노력에 대한 결실이 나타난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적이 되어 싸움이 불을 우려가 있다
62년생 탄력적인 대응하는 것이 순조롭다
74년생 중상을 입지 말것
86년생 애정운이 하락하고 있다
98년생 출가유나 주머니 사정은 빈곤하다

뱀 53년생 길거리를 조심해야 안전이 보장
65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라
77년생 내일을 다짐하 때를 기다리라
89년생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라

원숭이 56년생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68년생 맹목적이려면 무리함이 따를 것
80년생 도움 요청에 상대의 회답이 없다
92년생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 될 것이다

돼지 59년생 뜻하는 대로 밀고 나가라
71년생 듣기에 좋아 넘어갈 수도 있다
83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한다
95년생 잘 살펴보아라